



김제 난산지역아동센터에 'JB 희망의 공부방'

전북은행이 김제 지역 아동을 위한 학습환경 개선 사업에 이어가며 지역사회 돌봄 지원에 나섰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김제시 난산지역아동센터와 금구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226호와 제227호 오픈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 지역 아동들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난산지역아동센터에는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방역 블라인드와 벽걸이 에어컨 학습용 책상과 의자 등이 지원됐다. 이를 통해 화재 안전성을 높이고 학습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금구지역아동센터에도 장판과 책상, 의자 교체를 비롯해 빔프로젝터와 노트북 등 디지털 교육 기자재가 지원됐다. 이를 통해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제시 관계자와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전북은행 임직원 등이 참석해 사업의 의미를 공유했다.
/오상근기자·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전통 자산과 사찰음식의 만남

춘향제 핵심 '사찰음식 특별 강연' 앞두고 선제 스님, 몽촌원 등 축제 현장 점검 나서

남원시 관계자는 사찰음식의 거장 선제 스님이 제8회 춘향제의 핵심 프로그램인 사찰음식 특별 강연 및 전시를 앞두고 지난 3월 18일 축제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선제 스님 이번 방문은 오는 춘향제 축제 기간에 개최될 행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전시 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세부 기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선제 스님은 행사장인 예루인 내 '몽촌원'을 직접 둘러보며 공간의 취향과 관람객 동선을 세심하게 확인했다.
특히 스님은 과거 APEC 정상회의 만찬 당시 남원 목기를 활용해 한국 사찰음식의 정갈함을 세계에 알렸던 특별한 인연을 언급하며, "이번 춘향제에서도 남원의 전통 자산과 사찰음식이 어우러지는 최고의 미학을 선보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본 행사는 5월 4일 비움, 자연, 느낌, 계절을 주제로 한 전시에서는 남원 목기와 전통 다기가 조화를 이룬 테마별 사찰음식을 선보이며 한국 전통 식문화의 정수를 공유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또한 '맛, 사찰음식에 깃들다' 특별 강연에서는 사찰음식에 담긴 철학을 전하며, 사회와 함께하는 대담을 통해 '흑백요리사' 비하인드 스토리 등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된다.
춘향제 관계자는 "세계 무대에서 남원의 가치를 알렸던 선제 스님이 다시 남원을 찾아 축제를 빛내는 만큼 기대가 크다며, 이번 행사가 춘향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풍년농사기원... 진안군 농민회 영농발대식

진안군 농민회(회장 박시진)는 지난 20일 농업기술센터 야외교육장에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영농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도연맹 방극환 사무처장, 진안군의회 동창욱 의장, 전용태 도의원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농협 관계자, 농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해 농업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농발대식은 풍물 공연으로 시작했으며, 진안군 농민회 박시진 회장의 대회사, 내빈들의 격려사 및 축사 등의 기념식과 풍년기원 고사를 통해 농업의 무사 안녕과 풍년 농사를 기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지역발달장애인복지협회, 체육대회 개최

전북지역발달장애인복지협회(이하 협회)와 부안군지부(이하 지부)가 지난 19일 부안군 예술회관에서 가족들과 자원봉사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1부와 2부로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성과 협동심 함양을 위해 마련된 팀별 협동경기와 명랑운동회가 펼쳐졌다.
특히 부안지역 발달장애인들의 복지 지원에 앞장서 온 권익현 부안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정애 협회회장과 임병록 지부장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김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와 간담회

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0일 관내 지역아동센터 11개소와 함께 지역사회청소년보호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한 지역아동센터(11개소)는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위기(가능)청소년의 조기 발굴 및 지원체계 활성화, △주요 사업 및 상담·심리지원서비스 공유, △위기청소년 사례 연계 및 협력 방안 등에 공유하는 등 상호 업무를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가운데 정서적 어려움이나 학업, 대인관계 문제 등을 겪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 상담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2026년 읍면동 세무담당 직무교육

김제시는 최근, 전산교육장에서 19개 읍면동 세무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체납징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분기별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전 읍면동 담당자들의 지방세인 체납액 징수 목표 공유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체납처분 절차이론과 지방세정보시스템 활용법을 주요 내용으로 실시됐다.
교육은 시청 세정과 징수팀장 및 세외수입팀장의 맞춤형 교육과 체납처분 절차의 이해, 체납자료 공유방안과 체납자 대응 절차 등 실무 중심의 교육 추진 후 담당자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페이퍼, '우수제지인상' 수상... 기술력·인재 경쟁력 입증

원로팀 전재만 부장 등 2명

전주페이퍼가 제지산업 현장 기술력과 인재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업계 내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전주페이퍼는 한국제지연합회가 주관하는 제41회 우수제지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2월 25일 서울 클럽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진행됐으며, 원로팀 전재만 부장과 생산팀 정점열 과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제지인상'은 제지산업 발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 기술 혁신에 기여한 인재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현장 전문성과 기여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된다.
전재만 부장은 1994년 입사 이후 30여년간 생산 현장에서 공정 안정화와 품질 향상에 기여해 온 기술 인력이다. 주요 설비 시운전 참여를 통해 초기 공정 안정화와 품질 확보를 이끌었으며, 설비 운영 효율 개선과 공정 혁신 활동을 통해 생산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신문용지 설비를 산업용지로 전환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사업 구조 개선과 수익성 향상에 기여했다.
정점열 과장은 1992년 입사 이후 생산 품질 관리 핵심 공정을 담당해 온 현장 전문가로, 제품 최종 품질을 책임지는 공정에서 성과를 내왔다. 설비 개선과 공정 관리 활동을 통해 품질 안정성과 생산 유연성을 높였으며, 기술 교육과 노하우 전수를 통해 조직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주페이퍼 원로팀 전재만 부장

이번 수상은 장기간 축적된 현장 경험과 기술력이 실제 생산성과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전주페이퍼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개인을 넘어 조직 전체의 기술력과 역량이 함께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인재 육성과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순창소방서,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순창소방서(서장 오승주)와 순창의용소방대연합회는 지난 20일 순창군민예술회관에서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숭고한 봉사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순창군수, 군의장, 군의원 등 주요 내빈과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19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평소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선 유공자 20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죽항동, 광양 다압면과 상생 교류

남원시 죽항동(동장 이은주)은 지난 20일 자매결연 도시인 광양시 다압면을 방문해 지역 간 우호 증진과 협력 강화를 위한 교류 행사를 가졌다.
이날 방문에는 이은주 죽항동장을 비롯한 동장님과 직원이 참여했으며, 방문단은 다압면 매화축제 현장을 찾아 축제를 함께 즐기며 자매결연지의 우애를 다졌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제96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 할 지역은 지난해 다압면 이장단이 춘향제 대표 프로그램인 대동길 놀이에 직접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던 점을 되새기며, 올해 역시 다압면 주민들을 대동 길놀이에 초대했으며, 죽항동과 다압면 직원들은 상생 발전을 응원하며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상호 기탁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 기공식·안전기원제

남원시는 최근 운봉읍 운산리에서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사업 기공식과 무사고를 기원하는 안전기원제를 진행했다.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사업은 2023~2024년 국토부 교육부 행안부 등 7개 부처의 공모사업(총사업비 410억)에 선정돼 시작. 활력타운의 구성은 단독주택 부지 45가구, 공동주택 42가구의 주거공간 조성, 청년과 귀농귀촌인을 위한 복합레저디딤스와 창업공간을 조성한다.
남원시는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철저한 현장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사고없는 완벽한 시공을 다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시 노송동, '봄맞이 봄꽃심기 행사' 개최

지난 20일 노송동에서는 마을계획추진단, 통장협의회 등 지역주민 40여명이 모여 봄을 맞아 쾌적하고 아름다운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봄맞이 봄꽃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노송동 주민센터 근방 및 주요 도로변에 팬지, 비올라 등 다채로운 봄꽃을 식재하며 천사마을에도 새 봄이 찾아왔음을 물신 느끼게 해주었다.
특히 이번 꽃심기 행사는 단순한 환경정비를 넘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이웃 간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노송동은 앞으로도 계절별 꽃 식재와 환경정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깨끗하고 온기가 넘치는 마을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성국 마을민들기협회의 회장은 "봄꽃을 심어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해 보람을 느끼고 화사한 천사마을 노송동을 만들기 위해 마을민들기협회가 솔선수범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옥이 통장협의회 회장은 "주민들이 화사한 봄꽃을 보며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오현순 노송동장은 "자생단체와 함께하는 봄꽃 심기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 간 결속을 다지고, 지역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봄꽃의 생기를 느끼고 아름다운 봄의 첫 시작을 만끽했다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 및 사업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전직 진안군 새마을회장단, 진안군에 장학금

전직 진안군 새마을회장단들이 지난 20일 진안사랑학재단에 장학금 250만원을 전달하며 지역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다.
김정우 회장은 "진안의 미래를 짊어줄 후배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회원들과 뜻을 모았다"며, "진안의 인재들이 꿈을 펼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진안사랑학재단 관계자는 "퇴임 후에도 변함없이 지역 발전과 인재 양성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전직 새마을회장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보내주시 소중한 장학금은 진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들이 큰 재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내실있게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진안사랑학재단은 장학금 지급뿐 아니라 중학생



해의 역사탐방, 생활과학교실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진안군 관내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